

## 일본의 종합건강증진계획 소개 (Ⅲ)

### — 분석 및 평가로 본 일본에서의 건강유지증진사업의 성공사례 —

(지난호에 계속)

편집실

사업장의 근로자전원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이 나 적합한 운동지도의 철저를 이미 198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회사가 도쿄가스(주)이다.

13,000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건강만들기사업」의 결과 10년간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5세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산소섭취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그림 6), 순환기 관리자수(고혈압이나 심장병으로 의사의 관리하에 있는 자의 수)의 증가경향 억제가 인정되었고 드디어 감소에 도달하였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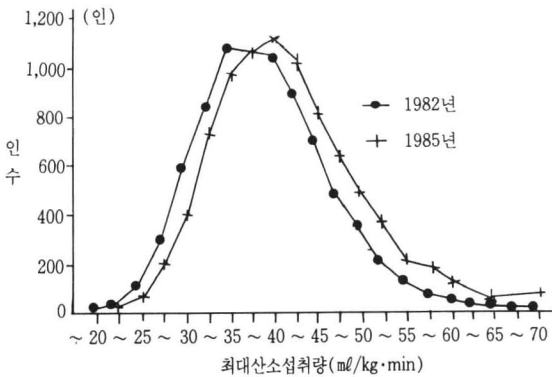


그림 6. 건강만들기사업 도입 전후의 최대산소섭취량의 분포 비교

이와같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결과적으로 사업장전체에도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된다. 장기질병휴업일수의 감소가 각 연대별로 나타난 결과(그림 8), 1988년도에는 총휴업일수가 추계치(推計値)에 비교해 거의 반감(半減)된 극적인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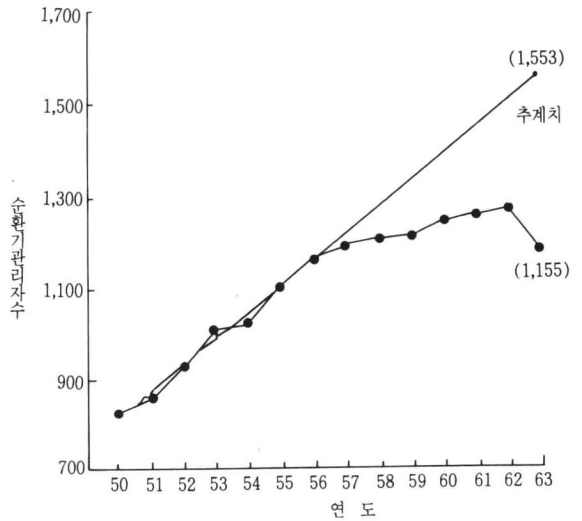


그림 7. 순환기관리자수의 추이 (고혈압·심장병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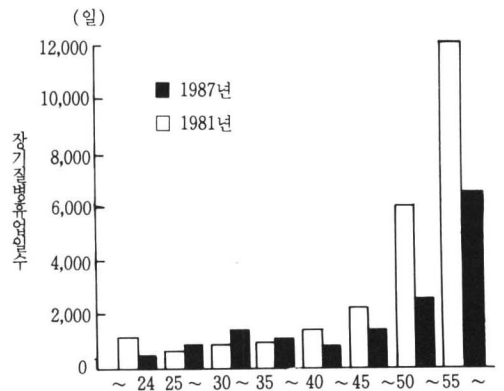


그림 8. 연령별로 본 장기질병휴업 추이(1,000명당)

이와같은 효과는 의료비에도 나타나고 있다. 1인당의 의료비는 1984년도부터 감소하여 1987년도에는 다소증가하긴 했으나 추계치에 비해 15,000엔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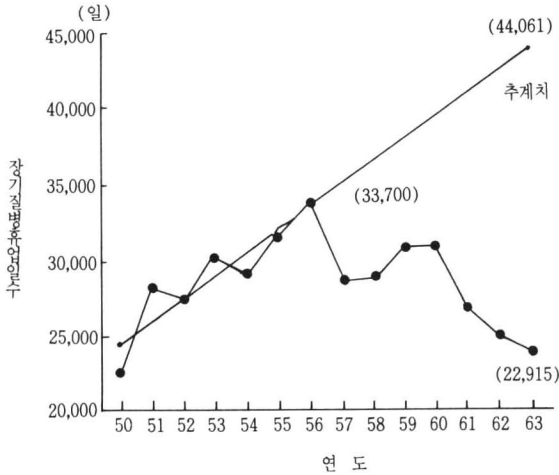


그림 9. 장기질병총휴업일수의 증가억제

13,000명이므로 이때만해도 약 2억엔, 4년동안 연(延) 10억엔의 절약효과를 산출(産出)하였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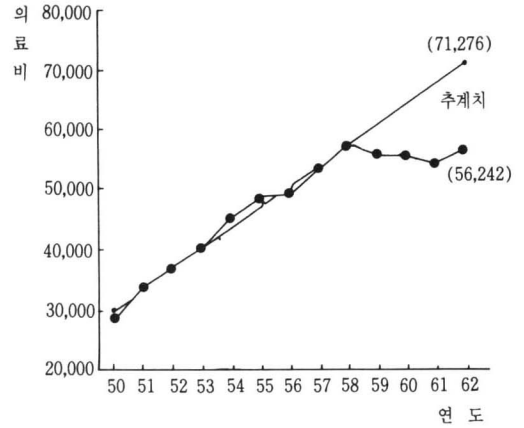


그림 10. 1인당의 의료비

**알아들시다!**

## 염소화비페닐;PCB

### (polychlorinated biphenyls;PCB)

**사례** PCB 생산과 사용이 시작된 이래, 산업현장에서는 PCB 단독 또는 클로르나프탈린과 병용해서 염소좌창이나 간장해가 발생된 보고가 다수있다. 또 콘덴사 관계 작업자에게 만성중독이 의심되는 피진이 나타났다.

**증상** 급성중독에서는 고농도 증기가 눈, 코, 인후에 중등도의 자극성을 띤다. 피부에 부착되면 경피흡수되어 흡입섭취될 때와 마찬가지로 중등한 중독을 일으켜 사망할 위험성이 있다. 아급성 만성중독은 일반적으로 고염소화물이 지용성이 높고 또 대사를 받기 어려워 체내잔류성이 높기 때문에 저염소화물보다 더욱 만성중독이 문제시 된다. 중독증상으로는 특히 피부장해와 간장해의 자각, 타각증상에 주의해야 한다. 피부는 클로르나프탈린이나 펜타클로르페놀의 취급작업자에게만 나타나는 것과 같은 양상의 클로리아크네이며 안면, 귓볼, 목, 흉부, 등 등에 접촉성 좌창성 피진이 다발한다.